

### 부산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교육 등 절차 거쳐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 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질병·부상·주(主)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산시가 총괄하고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운영·관리하며 권역별 제공기관 6곳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시가 최종 선정돼 총 3억 원의 규모로 제공기관 6곳 선정과 종사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가사 지원·이동지원(장보기·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120% 초과인 경우 요금이 차등 부과(10~100%)된다.

김중창 기자 jckim@skyedaily.com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춘천시와 주한이탈리아대사관과의 공동협력사업인 '2024차오, 이탈리아'가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다.

### 춘천 '차오, 이탈리아' 오늘 시작 韓·伊 수교 140주년 공식 행사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춘천시와 주한이탈리아대사관과의 공동협력사업인 '2024차오, 이탈리아'를 7일부터 9일까지 춘천시립도서관, 세계주류마켓, 산토리니, 한림대학교, 농업기술센터 등 춘천 일대에서 사흘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으로 '2024 차오, 이탈리아'는 공식 행사로 펼쳐진다.

이에 따라 시는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현안 외에도 음식, 음악, 영화 등 이탈리아의 문화를 체험하려는 참가자들을 위한 문화 체험 행사가 준비됐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식도시 춘천'을 알리고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음식문화 교류회인 'FOUR HANDS'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에는 사찰요리 명장 정광선님과 이탈리아 스타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 씨가 참가한다.

특히 7일 오후 7시30분 구봉산 산토리니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되는 한국-이탈리아 친선 음악회에는 멋진 우정의 협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 경북, K키친 기반 '푸드테크 새 미래' 제시

##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서 '2024년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개최 전국 최초 미래형 주방 선봬... 대체육 활용 요리경연도 진행

경상북도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경상북도 식품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푸드테크 기반 K키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행사는 'Eat the 경북, 잇다 Future!'라는 주제로 △전국 최초 미래형 주방인 K키친부터 경북의 고(古)조리사를 재해석한 헤리티지관, 세계 속 K푸드를 소개한 주제전시관 △외식업소 인기메뉴 밀키트 제품들의 라이브커머스와 식품비즈니스관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대체육을 활용한 푸드테크 요리 경연과 함께 푸드테크 관련 학술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가차·용합·로컬을 키워드로 지구환경까지 생각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해 푸드테크와 다양한 대체식품을 소개하고 '모컬한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표현에 걸맞은 경북 고조리사의 혼

례음식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길거리를 음식을 전시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설계한 K키친은 로봇이 조리하고 시중드는 미래형 스마트 주방 시스템으로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푸드테크 기반 K키친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식품 제조 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선정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이는 노인이 많은 경북 외식업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도내 외식업소 인기 메뉴를 밀키트 제품으로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와 인공지능(AI)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해 사업장의 브랜드 마케팅을 도와주는 마케팅 솔루션서비스는 외식업주들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푸드테크 요리경연대회는 식물성 대체육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요리 경연으로 관련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수 참가해 대체식



경북도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경상북도 식품박람회'를 개최한다.

경상북도

품에 대한 인식 전환에 노력한다.

아울러 제과제빵 경연대회와 설탕공예 전시, 스토리가 있는 나만의 김밥 경연대회, 비건 도시락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넘치는 행사로 진행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푸드테크 콘퍼런

스와 관련 포럼 등도 함께 열려 외식업계 경영자들에게 데이터 기반한 외식테크를 공유하고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교류의 장도 마련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치열한 식품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전략이 절대적이

다"며 "도가 추진 중인 푸드테크 기반 K키친 프로젝트를 총망라해 선보이는 자리로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 식품산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초여름 보랏빛 향기 가득 품은 라벤더축제가 8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서 열린다.

동해시

## 동해시 초여름 '보랏빛 향기' 아롱다롱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내일 개막

23일까지 ... 청옥호 플라이보드쇼·페달카약 등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초여름 보랏빛 향기 가득 품은 라벤더축제가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서 열린다.

이 곳에는 약 7000평 규모의 야외 라벤더정원에 총 1만3000주의 라벤더와 멕시코 세이지, 아이비 등이 식재되어 있고 호수 주변으로 조성된 신들의 화원과 노을보라 정원 등 2만 여평의 공간에서 자라는 총 17만3000주의 금어초와 비베나는 마치 거대한 야외식물원을 연상케 하고 있다.

올해 축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16일로 확대되어 외지 관광객 방문 유도를 통한 무릉별유천지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비 등으로 이어질 것 기대하고 있다.

축제 기간중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라벤더 보라 콘서트

가 진행되며 15일과 22일에는 오후 1시부터 화려한 청옥호 플라이보드쇼가 펼쳐져 초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게 된다.

시는 무릉별유천지를 상징하는 대형 캐릭터로 무별이를 청옥호에 띄워 낮에는 포토존으로 밤에는 야간 경관으로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 하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또한 축제기간에는 라벤더가 사용된 필로우미스트, 차랑용디퓨저, 꽃차, 비누 등 무릉별유천지만의 색깔을 입힌 전용 굿즈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청옥호 둘레길 트레킹, 꽃밭 보물찾기, 라벤더 사생대회, 힐링요가, 키즈놀이, 프로포즈 존, 페달카약 등 볼거리가 가득한 행사와 함께 각종 체험 부스, 푸드트럭 푸드존을 선보인다.

특히 문화체육부 청년 직원과 함께 하는 로컬100 통해 가차여행이 개막 전날인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돼 라벤더 축제와 주요 관광지 홍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 첫째 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한 청년 공무원, 기자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 일행은 KTX를 이용해 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된 무릉별유천지를 비롯한 천국 황금박쥐동물, 도재비굴 스카이벨리를 관람하고 망상해변과 추암해변, 북평 민속5일장을 방문한다.

홍성표 무릉사업단장은 "초여름 보랏빛 향기가 더욱 짙어가는 무릉별유천지에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하여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고 힐링의 여유를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 기장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박차

동남권 산단에 선도 생산기업 아이큐랩 착공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5일 동남권 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에서 전력반도체 선도기업인 아이큐랩이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정중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진 산업은행 부행장, 김권재 아이큐랩 대표이사 등 중 앙 및 지자체, 학계·산업계 관계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이큐랩은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설계 및 기술 개발 전문기업으로 올해 4월 부산시로부터 '전력반도체 선도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대외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산시와 협약 체결을 거쳐 기장군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남권 산단 유치에 최종 확정됐다.

아이큐랩은 전력반도체 핵심기술을 토대로 동남권산단 8-4구역에서 국내 최초 연간 8인치 SiC웨이퍼 기반 3만장 규모의 전력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팹(fab, 반도체 생산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양산 시작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300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연간 최대 3000억 원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중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경상북도 문경시는 5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4년 제19회 문경사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축제 모습.

문경시

## '2024문경사과축제' 준비 본격 시동

추진위원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성공전략 논의

경상북도 문경시는 5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4년 제19회 문경사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축제 개최 시기, 추진 방향 등 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 문경사과축제는 10월19일부터 27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며 체험·참여·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TV 프로그램 생방송 진행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펼쳐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